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 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교류는 '다른 세계'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달까, 신촌에서의 하숙생활

August 09, 2013

좋아요 17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가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한 명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스타 같아서 순간 잘못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틀림없이 일본대사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정무공사가 아닌가. 한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었다.

후나코시 공사는 이날 외교부에서 항의를 받았다. 이유는 전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다케시마에 관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60퍼센트가 ‘다케시마는 일본영토’ 라 답했다고 한다. 한국이라면 거의 100퍼센트가 ‘한국영토’ 라 답할 테니 “일본은 그 정도?” 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리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하는 자체가 도발적이라며 화를 낸다. 여론조사에 항의가 들어온 것은 세계외교사에서조차 흔치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일본정부가 이런 조사를 한 것이 처음이긴 하니 한국이 신경 쓰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작년 여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 섬에 가지만 앓았다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먼저 도발한 게 누구냐 묻고 싶어질 터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모르는 일’ 이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에 짓궂은 일을 당했다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언론도 “조사라니 꽤 씹하다” 는 비판의 함창이다.

‘3·1절’ 연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 이라 단언한 박대통령 연설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골이 깊어진 일·한관계지만, 요즘 더 거센 도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미국에 소녀상이 서는 것만으로도 일본에는 자극적인 일인데,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일·한전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적은 현수막과 안중근의 초상화가 관중석에 걸렸다. 스포츠의 장에서는 ‘반칙’ 이라 알면서도 감행한 행위임이 분명하니 한국 언론도 타이르는 분위기였지만, 일본 각료가 “민도(民度)의 문제” 라 논평하는 바람에 화살은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 ● 응원용 욕일기도 비난의 표적

이곳 언론은 일본팀 응원에 동원된 욕일기에 대해서도 ‘제국주의 상징’, ‘나치 깃발을 연상시킨다’ 며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나의 ‘옛집’ 아사히신문도 비슷한 모양의 깃발을 사기로 걸어온 만큼 이 일에는 두 손 들었다.



여론조사 건으로 주한 일본공공 아소 부총리의 ‘나치 발언’ 언론들.



More AAA



그 와중에 튀어나온 것이 “헌법개정은 나치 수법을 배우라” 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이다. 아무리 “진의를 그 반대” 라 해명해도 통할 리가 없을 것이다. 나도 한국 언론의 질문에 대답이 궁했다. 이 치명적인 ‘자살골’ 에 한국 언론은 기회를 놓칠세라 공격 중이다.

그러하니 뉴스 보기가 괴롭지만, 얼마 전 한 모임에서 만난 일본 경제인과 문화교류 관계자의 “정치적 다툼은 다른 세계 일인 듯하다” 는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리고 보니 나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젊은이들도 “안 좋은 경험을 한 일이 전혀 없다” 고 태평하곤 했다. 축구 일·한전을 가서 본 친구 한 명은 “보통 서포터들은 화기애애하게 서로 장난치듯이 응원전을 하던데” 라며 무척 아쉬운 모양이었다.

마치 두 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위기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오래갈지 어떨지. 도발전에 바쁜 양국의 여러분들, 부탁이니 일반 국민들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요즘이다.

###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3월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 권오기 씨와의 대담) 등이 있다.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후나코시 다케히로 야스쿠니 영토

1



좋아요 17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 관련기사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든까, 신촌에서의 하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자취가 서툴고 외식만...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 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 선을 흠어 태극기를 연상하... 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정치’ 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원, 공연. 세 가지 ‘고엔’ 으로 젊음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연, 공연. 한국어... 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 주는 그런 ‘고엔’ 의 연속... 된’ 한 주였다.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

## (拜啓) 김대중 선비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가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로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칼(중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⑤국제스 풍부한 우리 반

May 16, 2013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오바마 대통령과 첫 회담을(다.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에서 훌륭히 연설도 했으니(만, 대통령 대변인이 워싱턴(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바(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